

지역금융기관의 금융포용지수에 대한 연구

: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dex of Financial Inclusion of Local Financial Institutes

: Focusing on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nd Credit Union

김 봉 균**·여 효 성***

Bong Kyun Kim·Hyo-sung Yeo

■ 목 차 ■

- I. 서론
- II. 지역금융에 대한 배경 및 선행연구
- III. 지역별 금융포용지수 분석
- IV. 분석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의 금융접근성 및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평가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신협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성과로 측정하였다.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기관의 확산, 금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측면을 반영한 금융포용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포용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요인을 살펴본 결과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의 확산 측면에서는 신협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새마을금고가 가진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지역

* 본 연구는 여효성·김봉균(2020)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 제1저자,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1. 8. 11. 심사기간: 2021. 8. 11. ~ 2021. 9. 10. 게재확정일: 2021. 9. 10.

금융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지역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금융포용지수, 지역 간 비교

This study evaluates the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MG) contributions to regional finance. MG was compared with the Credit Union, which has similar goals and characteristics to MG. An index of financial inclusion (IFI) was adopted to measure the contribution to regional finance, which evaluates three areas of regional finance: (1) the level of bank penetration, (2)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3) considerations to vulnerable groups. Our results show that MG's IFI score has improved over the past years, but the Credit Unions' overall score was higher. MG performed better than Credit Union only in the financial penetration a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MG has room to improve its contribution by providing more financial services to socially vulnerable groups.

□ Keywords: Local Finance,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Credit Union, Index of Financial Inclusion, Regional Comparison

I. 서론

지역금융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금중개 등 다양한 금융행위를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전국금융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금융을 주로 활용하는 고객은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소위 금융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신용도나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신용제공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지역 간 자금이동이 완전하고 거래와 관련된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금리격차나 신용할당이 나타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재정거래를 통해 곧바로 해결될 수 있지만, 지역 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법제적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지역 간 자금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간에 금융시장이 분리·단절되는 등 금융의 지역성이 존재하게 된다.

지역금융기관 혹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 내 존재하는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의 경우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경우 역시 ‘공유유대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에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최근 들어 지역 금융기관들의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일반 시중은행 대비 감소폭이 낮다고는 하나 지점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기관 지점수의 감소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점이 통폐합되는 지역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발생시킨다. 다음으로 영업구역의 광역화 현상이다. 지역금융기관의 광역화는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수익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특히 거점은행이 부재한 지방의 경우 금융기관 접근성 악화는 지역금융기관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금회전을 측면에서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금융기관들의 경우 수신액에 비해서 여신의 규모가 더 작다는 사실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소득불평등 수준을 감소시키고 취약계층의 빈곤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Banerjee and Newman, 1993; Clarke et al., 2006; Dupas and Robinson, 2013; Churchill and Marisetty, 2020; Koomson and Danquah, 2021), 지역금융기관들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발전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역금융기관들이 현재 지역 내 금융접근성 및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역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초점을 맞추어 새마을금고의 지역금융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금융기관인 신협과의 지역별 금융포용지수(Index of Financial Inclusion) 비교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지역의 금융접근성 및 활성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금융포용지수는 크게 금융기관의 확산, 금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부문으로 측정하였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와 관련하여, 우선 금융기관의 지역 내 확산수준(bank penetration)은 10만명당 지점 수 및 조합원당 출자금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금융서비스의 제공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지역 내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지점당 여수신 규모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정도는 전체 대출규모 대비 정책자금 대출 비율을 사용하였다. 정책자금 대출은 지역 내 정책적 수요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수 수요를 반영하여 별도로 집계된 대출금액으로서,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금융포용지수는 각 변수에 대하여 지역 내 지역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협)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이용한 Sarma(2008)의 방법론을 따라 측정하였다.

2016~2020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가 신협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지역은 광주를 포함한 5개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모두 신협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을 특·광역시와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봤을 경우에도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낮게 나타나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가 어느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포용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점포당 여수신 규모와 정책자금 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마을금고가 가진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금융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개선방안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정찬우(2010)의 연구와 서민의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협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 류덕위(2011)의 연구, 금융서비스 제공자를 ‘제도권-비제도권’,

그리고 ‘영리-비영리’의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른 서민금융확대 방안을 제시한 이진범(2012)의 연구, 그리고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의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손상호(2013)의 연구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금융기관이 지역의 금융접근성 및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금융포용지수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포용지수와 관련해서도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Park and Mercado, 2015),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지역 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관련 선행연구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II. 지역금융에 대한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역금융기관의 유형 및 역할

지역금융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금 중개 등 다양한 금융행위를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국금융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은 읍, 면, 동 등 좁은 지역에서부터 시, 군, 구, 그리고 더 나아가 시, 도 등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행위는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인 예금·대출 뿐 아니라 펀드, 보험 판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업무가 포함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지역에서 여수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지역금융을 논의한다.

지역금융에서의 지역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수·산림조합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예금취급금융 기관을 지칭한다. 지역금융을 주로 활용하는 고객들은 영세기업, 자영업자, 서민 등으로서 상업은행이나 전국금융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계층이 주요 대상이다.¹⁾ 이들 고객은 전국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신용도나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객층이다.

예금은행의 경우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은행법 제2 조 제1항 10호)으로 지방은행을 꼽을 수 있고, 현재 6개 지방은행(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제주은행)이

1) 신용도나 담보력에 상관없이 지역적인 편이성 때문에 지역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층도 존재한다.

영업 중이다.²⁾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시중은행보다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은행이 좀 더 쉽게 설립되어 지역금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하는 경우를 대주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은행의 경우 이를 15% 초과(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및 지역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은 없지만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한 한은 총액한도대출제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지방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금융 기관 여신운용 규정 제2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은행은 재할인 및 대출을 제한 또는 거절하거나 여신에 대하여 한국은행 최고여신이자율 범위 내에서 벌칙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저축은행은 1970년대 서민 및 영세상공인에 대출을 제공하고, 영세 한 사채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설 무진회사, 서민금고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업자들을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의 금융회사로 인가해 주면서 형성되었다. 당시 정책당국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상호신용금고를 건전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상호신용금고에 지역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였고 상호신용금고의 지점 설치 등에 제한을 두면서 이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유도한바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관련 대출의 부실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구조조정이 지속되었다. 구조조정으로 영업을 정지된 저축은행들은 모두 제3자에게 인수되었으며 복수의 저축은행이 인수되면서 저축은행의 대형화 현상은 지속되어 왔는데, 엄격한 조건하에서 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저축은행 그룹을 포함하여 기존에는 복수로 존재하던 저축은행을 한 소유주가 한꺼번에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러한 인수자에 대한 혜택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확대시켜 주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현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등 6개 영업구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영업구역에 해당하는 대출의 비중, 지점 허가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각각의 영업구역 내에서 주로 영업을 하도록 유인을 부여하고 있다.³⁾

2)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각 해당은행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그간 지방에 본점을 두고 해당지역 중심으로 영업하도록 엄격히 규제하였으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규제완화로 영업구역 규제의 효과가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은행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설정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지방은행 본연의 모습이 많이 퇴색된 상태이다.

3) 상호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 구역이 수도권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영업 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해야만 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신협, 농·수·산림조합의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두고 있다. 상호금융 조합원은 시·군·구 등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이며, 준조합원은 주소·거소를 둔 자이고 이들에 대해 농협은 전체 대출의 1/2, 기타 상호금융은 1/3의 의무대출 비율을 적용받는다. 신협의 경우 대출영업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이고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감독권을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금융기관들 중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연구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자본금, 여수신금액, 조합원 수 등 분석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협의 경우에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지역금융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농협의 업무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하여 부득이하게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지역금융기관의 금융활성화에 대한 선행연구

위에서 살펴본 지역금융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신용등급이나 저소득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상으로 한 금융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⁴⁾

정찬우(2010)는 우리나라 서민금융시장과 서민금융회사의 변천과정을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서민금융회사가 저신용 고객에 대한 신용공급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자본력이 취약하여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로 크게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무리한 자산 확대 억제, 건전성 및 경영 투명성 제고,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언급하였고, 상호금융회사의 경우는 새로운 금융환경 및 제도에 대비한 금융서비스 기반확대,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조합 운영체계 개선,

4)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비은행 예금수취기관, 비은행 대출기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등의 용어는 본 연구에서의 지역금융기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지원·감독 기능 강화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언급한 후 각각의 기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류덕위(2011)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출 위주로 금융시장을 구조조정 한 결과 금융배제현상 및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탁의 역할 증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신탁을 포함한 서민금융기관들은 지역에 영업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서민층의 금융배제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신탁의 입지적 특성과 규모에 따른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는데 농어촌과 직장조합의 경우 정체성을 중시하는 지역밀착형 전략을, 중소도시의 지역조합들은 정체성과 경제성을 혼합한 혼합전략을, 그리고 대도시조합과 중앙회는 대형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경제성 중시 전략을 각각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건범(2012)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에 대한 신용증가가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층 위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를 ‘제도권-영리’, ‘제도권-비영리’, ‘비제도권-영리’, 그리고 ‘비제도권-비영리’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각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른 서민금융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은 ‘비제도권-영리’ 영역에 속하는데 금융포용과 관련하여 이 영역에 속하는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용협동기구들의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점기구의 역량 강화, 위탁보증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지역 영업 확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신용협동기구들에 대한 통일적 규제 및 감독체제의 도입, 대형화된 상호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통한 영업 범위 확대 및 지역 금융 활성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등을 주장하였다.

손상호(2013)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의 신용대출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하여 이들 기관의 자금증개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한 소액신용대출의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신용대출이 총 대출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감독기관이 권고하는 서민소액신용대출권고제도를 업종별로 차등 도입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안과 서민금융기관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서민소액신용대출비율이 높은 서민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금을 이용하여 지원해 주는 안 등을 제시하였다.

김정현·전성범(2015)은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역금융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전국의 특·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금융의 현황, 지역금융의 위축성, 지역금융위축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사이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 분석한 후 지역금융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금융기관을 예금기관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을 포함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나누어 지역금융의 위축성과 역외유출률을 살펴본 결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위축성과 역외유출률이 예금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특히,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통한 지역 자금이 지역 내의 신용공급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김정현·전성범(2015)은 지역금융의 활성화 방안으로 신용보증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증개기능 강화와, 맞춤형 경영 및 금융 자문 서비스제공 등 지역금융시장에서의 관계형 자금증개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박창균(2016)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금융포용을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아닌 신용대출에 대한 용이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신용공급에 있어서 서민금융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으로 측정했을 경우 높은 금융포용 수준을 보이지만 은행과 비은행 대출기관 간에 시장이 분할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경우 저신용·저소득 차입자의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포용 확대에 있어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민금융기관의 발전방안으로 상호금융기본법 제정을 통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통일적인 규제 및 지원, 법인세 면제 등 지원정책 강화, 이사회에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및 경영진의 보수 체계 개편 등 지배구조 개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신용보증기금 설치를 통한 서민대상 신용대출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표 1>은 선행 연구들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에 따라 저소득 및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이 크게 위축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지역금융기관이 현재 지역 내 금융접근성 및 활성화에 대하여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거시적인 발전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포용지수를 이용한 평가결과를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선행연구 주요 내용

저자	분석대상	지역금융기관 금융활성화 주요 방안
정찬우 (2010)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의 경우 무리한 자산 확대 억제,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 금융서비스 공급 확대 지향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서비스 기반확대, 회원조합 운영체계 개선, 중앙회 및 연합회의 지원·감독기능 강화 지향
류덕위 (2011)	신협	농어촌과 직장조합의 경우 정체성을 증시하는 지역밀착형 전략, 중소도시의 지역조합들은 정체성과 경제성을 혼합한 혼합전략, 대도시조합과 중앙회는 경제성 증시 전략 추진
이건범 (2012)	‘제도권-비제도권’/ ‘영리-비영리’ 금융기관	‘비제도권-영리’영역 금융기관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점기구의 역량 강화, 위탁보증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지역 영업확대, 통일적 규제 및 감독체제의 도입, 대형화된 상호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통한 영업범위 확대 및 지역 금융 활성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상 혜택 제공
손상호 (2013)	비은행 예금수취기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신용대출이 총 대출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감독기관이 권고하는 서민소액신용대출권고제도 업종별 차등 도입 서민금융기관 지원기금을 통해 서민소액신용대출비율이 높은 서민금융기관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기금을 이용하여 지원
김정현 전성범 (2015)	비은행 예금수취기관	신용보증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지역금융기관 자금증개기능 강화 맞춤형 경영 및 금융 자문서비스제공 등 지역금융시장의 관계형 자금증개기능 강화
박창균 (2016)	서민금융기관	상호금융기본법 제정을 통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통일적 규제 및 지원, 법인세 면제 등 지원정책 강화, 이사회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및 경영진의 보수 체계 개편 등 지배구조 개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신용보증기금 설치

Ⅲ. 지역별 금융포용지수 분석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금융포용지수는 Sarma(2008)의 정의에 따라 산출하였다. Sarma(2008)는 국가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성인인구 천명당 은행계좌수, 인구 10만 명당 지점 수, 경제규모(GDP) 대비 여수신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여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하였다. Park and Mercado(2015)는 Sarma(2008)의 방식을 따르되 투입변수로 GDP 대비 예금액 대신 전체 인구 중 예금자 및 대출자수 비중을 적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⁵⁾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금융포용 상황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금융포용지수를 우리나라의 광역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 각각에 대하여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금융포용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t 연도에 지표로 구성하는 변수 j 에서 지역의 새마을금고 혹은 신협 i 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식 (1)과 같이 정의된 d_{ijt} 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d_{ijt} = \frac{A_{ijt} - m_{jt}}{M_{jt} - m_{jt}} \quad (1)$$

여기서 M_{jt} , m_{jt} 는 각각 t 시점의 표본 중 j 번째 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낸다. A_{ijt} 는 변수 j 에 대하여 지역의 새마을금고 혹은 신협 i 가 기록한 값을 나타낸다. 지역의 새마을금고 혹은 신협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하는 d_{ijt} 는 식 (2)와 같이 t 연도의 금융포용지수, $IFI_{i,t}$ 를 계산하는데 활용된다.

$$IFI_{i,t} = 1 - \frac{\sqrt{(1 - d_{i1t})^2 + (1 - d_{i2t})^2 + \dots + (1 - d_{int})^2}}{\sqrt{n}} \quad (2)$$

여기서 n 은 지표 산출에 투입된 변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산출된 금융포용지수는

5) Park and Mercado(2015)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금융포용지수는 0.689로 전체 176개국 중 12위로 나타났다.

6) 본 연구에서 $j = 1, \dots, 5$ 이며, 가령 $M_{(j=1, t=2020)}$, $m_{(j=1, t=2020)}$ 는 첫 번째 측정변수인 2020년 ① 성인인구 10만명당 점포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1)에서 i 가 경기도의 새마을금고인 경우 $d_{i,j,t} = d_{(경기도 새마을금고, j=1, t=2020)}$ 는 경기도의 새마을금고가 2020년 10만명당 점포수의 전국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에 비해서 상대적인 위치의 비율을 계산한다.

항상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금융포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게 된다. Sarma(2008)는 이렇게 계산된 금융포용지수가 NAMBUS(normalization, anonymity, monotonicity, proximity, uniformity and signaling)이라는 좋은 성질을 지녀 금융포용 정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산출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t 가 다년도일 경우 금융포용지수는 연도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단일 지수로 변환할 수 있다.

금융포용지수는 금융기관의 확산과 금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라는 세 가지 큰 측면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① 성인인구 10만명당 점포수, ②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 ③ 지점당 여신규모(억원), ④ 지점당 수신규모(억원), ⑤ 전체 대출금 대비 정책자금 대출비율을 사용하였다. 10만명당 점포수 및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은 지역 내 새마을금고 및 신협이 확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채택되었고,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점포당 여수신 규모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정도는 전체 대출 규모 대비 정책자금 대출비율을 사용하였다. 정책자금 대출은 지역 내 정책적 수요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수수요를 반영하여 별도로 집계된 대출금액으로서,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분석기간은 2016~2020년으로 최근 5년 동안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금융포용지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경우 여수신규모와 점포수 등의 금융 관련 데이터는 '새마을금고통계'와 '신협통계'에서, 그리고 해당 지역 인구수는 통계청의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에서 각각 입수하였다.⁷⁾

IV. 분석결과

<표 2>과 <그림 1>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금융포용지수의 지역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분석에 있어서 인구규모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세종시는 제외하였다. 먼저 전국평균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는 0.28이고 신협은 0.30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가 신협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국을 특·광역시와 도 지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결과를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모든 지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융포

7) 당초 Sarma(2008)가 제시한 금융포용지수는 국가별 금융포용도를 비교 측정하기 위하여 적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국내의 지역금융기관들의 금융포용도를 측정하였다. 단 국가간 비교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금융기관들의 비교에서는 금융기관 간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용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간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금융포용지수 크기를 비교할 경우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가 신협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지역은 광주, 경기, 충남, 전북, 그리고 경북이고 나머지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신협이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금융포용지수 결과와 관련하여 먼저 새마을금고의 경우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지역은 제주로 0.46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경북은 0.17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 대전, 경기, 그리고 전북은 전국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신협의 경우도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제주가 0.58로 가장 높은 금융포용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은 지역은 경북으로 0.15의 지표값을 보이고 있다. 전국평균과 유사한 값을 가지는 단체는 광주, 강원, 그리고 충북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모두에 있어서 제주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경북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지역별 금융포용지수⁸⁾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
전국	0.28	0.30
특·광역시	0.30	0.33
도	0.26	0.28
서울	0.30	0.40
부산	0.28	0.42
대구	0.31	0.32
인천	0.24	0.33
광주	0.32	0.31
대전	0.28	0.25
울산	0.36	0.28
경기	0.27	0.26
강원	0.25	0.31
충북	0.22	0.29
충남	0.26	0.19
전북	0.29	0.24
전남	0.24	0.28
경북	0.17	0.15
경남	0.19	0.22
제주	0.46	0.58

주: 세종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금융포용지수는 성인인구 10만명당 점포수,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 지점당 여신규모, 지점당 수신규모, 전체 대출금 대비 정책자금 대출비율을 이용하여 도출하였음.

8)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20년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포함하며, 2020년을 제외하고 산출한 IFI는 부록의 〈표 가〉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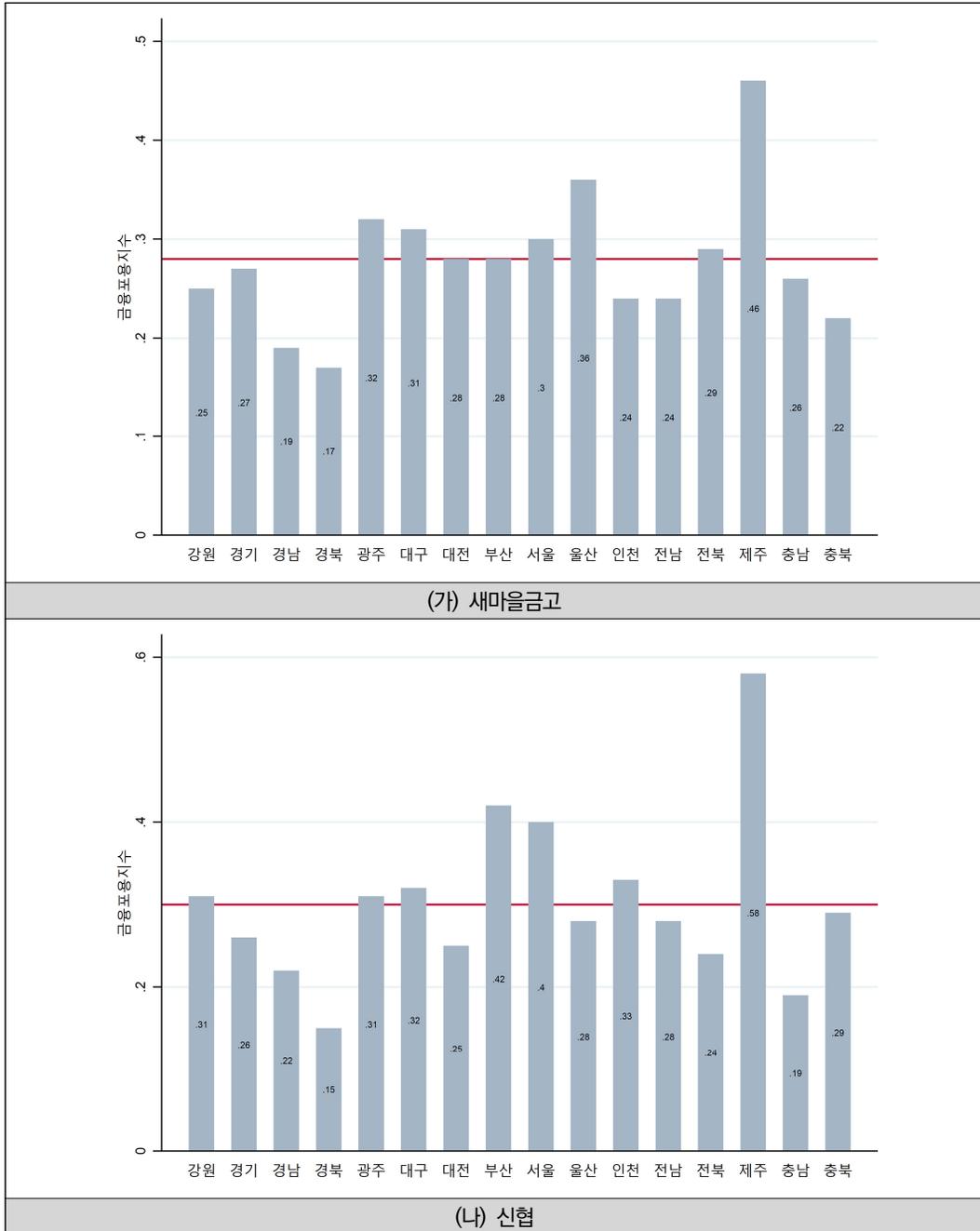
참고로 국가 간 금융포용지수 살펴본 Sarma(2008)의 연구는 0에서 0.3 미만의 금융포용 지수를 낮은 수준의 금융포용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⁹⁾ 비록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와 분석대상이 Sarma(2008)의 연구와 상이하지만, 만약 Sarma(2008) 기준을 <표 2>에 나타난 결과에 적용할 경우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는 낮은 금융포용 그룹에 포함이 되며 신탁은 중간정도의 금융포용그룹의 경계에 위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새마을금고가 하위 그룹과 중위그룹의 임계값인 0.3을 넘어서는 지역은 서울(0.30), 대구(0.31), 광주(0.32), 울산(0.51), 그리고 제주(0.46)이고 신탁의 경우에는 서울(0.40), 부산(0.42), 대구(0.32), 인천(0.33), 광주(0.31), 강원(0.31), 충북(0.29), 그리고 제주(0.58)가 이 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전체 16개 시·도 중 5개 지역이 중위그룹에 포함된 반면 신탁은 전체 7개 지역이 임계값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 나타난 결과는 금융포용지수에 대한 2016~2020년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어 새마을금고와 신탁의 금융포용지수의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금융포용지수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림 2>~<그림 4>에 각 연도에 따른 값을 나타내었다.¹⁰⁾ 먼저 <그림 3>에 전국기준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탁의 금융포용지수의 변화가 나타나있다. 패널 (1)에 나타난 새마을금고의 경우 2017년에 증가한 후 2018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다가 2019년에 또다시 증가하였다. 이렇게 개선 추세를 나타내던 금융포용지수는 2020년 들어 크게 감소하여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패널 (2)에 나타난 신탁의 경우 2017년에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후 2018년도에 큰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고 2019년도에 다소 개선이 되었으나 2020년 금융포용지수가 다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2016년에 비해 금융포용지수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신탁의 경우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며 2020년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의 최저수준인 2020년 금융포용지수는 새마을금고의 최고수준인 2019년 지수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 새마을금고의 지표에 대한 개선 여지를 여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9) Sarma(2008)에서는 IFI지수가 1~0.5에 해당하는 국가는 금융포용도가 높은 그룹(high IFI)으로, 0.5~0.3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간그룹(medium IFI)으로, 0.3미만은 낮은 그룹(low IFI)으로 분류하고 있다.

10) 각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는 부록의 <표 나>에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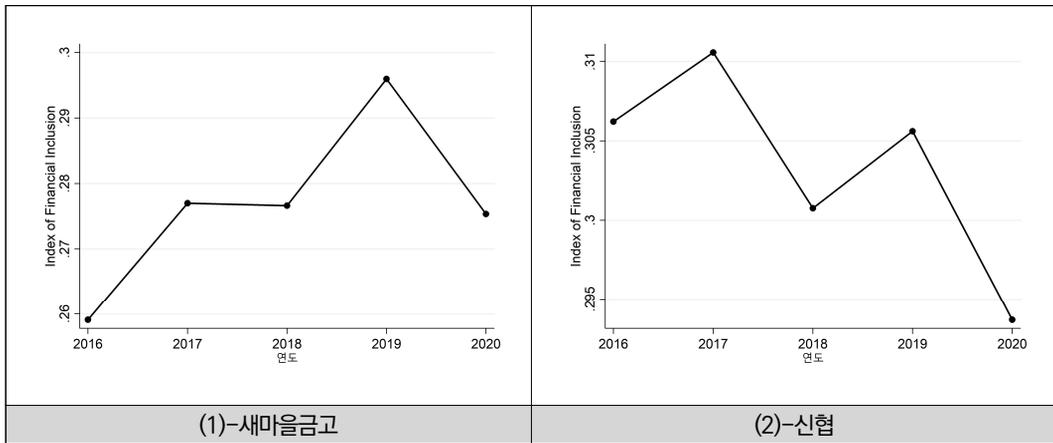
〈그림 1〉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역별 금융포용지수



주: 세로축에 나타난 선은 전국평균 금융포용지수 값을 의미함.

〈그림 3〉과 〈그림 4〉는 특·광역시와 도에 대한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새마을금고를 먼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국을 이용한 결과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017~2018년에 금융포용지수가 다소 감소하였고 2020년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신협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추이는 유사한 가운데 특·광역시에서의 변화폭이 전국에 비해서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그림 4〉에 나타난 도 지역의 추이는 앞서 살펴본 두 경우와 다소 상이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새마을금고의 경우 2020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있어서 금융포용지수가 증가하였는데, 2020년의 감소폭 역시 특·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마을금고가 신협에 비해 특히 비도시권 지역의 지역금융활성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협의 추세를 살펴보면 앞의 경우와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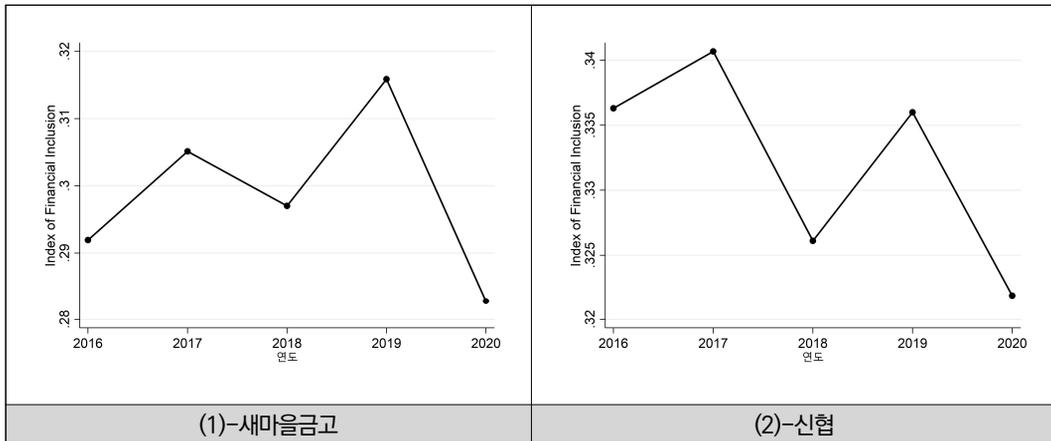
〈그림 2〉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금융포용지수 추세: 전국



주: 각년도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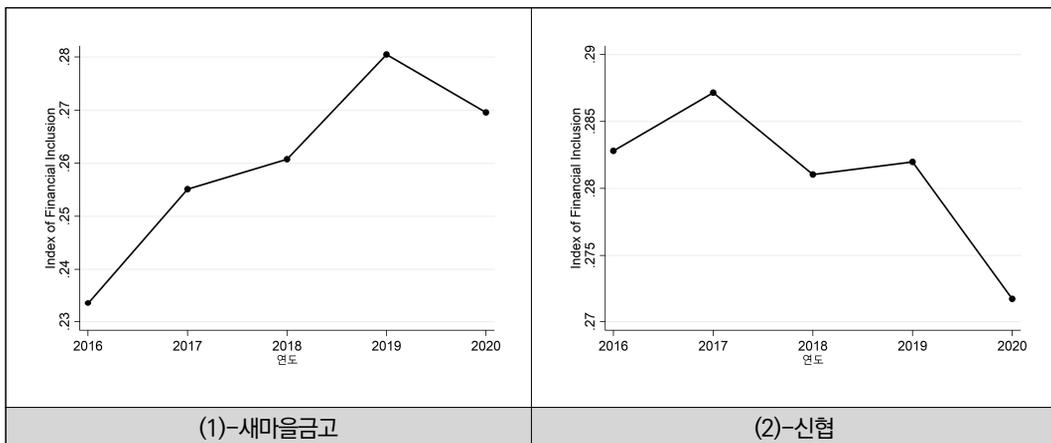
11) 각 지역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 추세는 부록의 〈그림 가〉에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그림 2〉의 (1)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모든 연도에 있어서 인천의 금융포용지수는 증가한 반면 울산의 금융포용지수는 감소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금융포용지수 추세: 특·광역시



주: 각년도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4〉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금융포용지수 추세: 도



주: 각년도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새마을금고의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협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금융포용지수 도출에 사용된 세부 변수들의 값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표 3〉에 지역별 금융포용지수 구성 변수의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우선 전국평균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성인 10만명당 점포수가 5.28개인 반면 신협은 2.53개로 새마을금고가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합원당 출자금은 두 기관 모두 약 8백만원 정도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지점당 여수신의 경우 새마을금고가 각각 606억원, 782억원인 반면 신협은 848억원, 1,068억원으로 새마을금고의 여수신 규모가 평균적으로 약 260억원 가량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대출비율 역시 신협이 새마을금고보다 0.13%p 더 높은 1.04%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 변수에 대한 이러한 수치는 새마을금고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포용지수가 여수신 규모와 정책자금 대출비율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볼 경우 점포당 여수신 규모와 정책자금 대출비율뿐 아니라 조합원당 출자금 규모 또한 새마을금고보다 신협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 두 기관 간의 점포당 여수신 규모 차이도 전국의 경우에 비해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도 지역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조합원당 출자금 규모가 다소 크게 나타난 반면 정책자금 대출비율은 신협의 경우 4.1%로 1.27%인 새마을금고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금융포용지수 구성 변수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높은 금융포용지수를 보이는 지역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그리고 경북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광주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조합원당 출자금이 1.13백만원으로 신협의 0.65백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값을 나타내고 있고 성인 10만명당 점포수도 4.62개로 신협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눈에 띈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 대출비율은 신협의 절반 수준이고 지점당 여수신 규모도 약 260억원 가량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기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10만명당 점포수가 3.45개로 1.21개인 신협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모두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정책자금 대출비율의 경우 신협은 0.98%인 반면 새마을금고는 0.37%로 1/3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충남의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비교해 보면 지점당 여수신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대하여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은 10만명당 점포수와 조합원당 출자금에서 새마을금고의 값이 신협보다 큰 반면 지점당 여수신과 정책자금 대출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경우 10만명당 새마을금고의 점포수가 8.91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조합원당 출자금은 0.71백만원으로 절대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그다지 큰 수준은 아니지만 경북의 신협에 비해서는 더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지점당 여수신 규모와 정책자금 대출비율에 있어서는 신협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 지역별 금융포용지수 구성 변수 현황

(단위: 백분율, 개수, 백만원)

구분	지역	변수				
		10만명당 접포수	조합원당 출자금	지점당 여신	지점당 수신	정책자금 대출비율
새마을 금고	전국	5.28	0.80	60,601.94	78,273.8	0.91
	특·광역시	5.01	0.90	67,383.88	88,539.22	0.46
	도	5.50	0.72	55,327.1	70,289.58	1.27
	서울	2.47	0.79	85,553.53	117,928.4	0.56
	부산	5.17	0.67	61,583.93	88,739.02	0.63
	대구	5.24	0.70	80,038.25	101,987.4	0.26
	인천	3.85	0.90	55,281.22	72,779.07	0.61
	광주	4.62	1.13	61,188.55	80,449.31	0.58
	대전	5.99	1.11	53,837.59	65,421.38	0.41
	울산	7.70	1.02	74,204.09	92,469.94	0.16
	경기	3.45	0.85	67,203.94	88,576.23	0.37
	강원	5.47	0.74	44,879.94	58,826.56	1.57
	충북	7.03	0.67	48,701.81	64,376.17	0.43
	충남	4.47	0.66	59,219.37	75,296.52	1.04
	전북	5.13	0.86	67,154.15	80,071	0.53
	전남	5.05	0.70	49,138.01	61,360.7	1.31
	경북	8.91	0.71	34,266.71	44,400.77	0.48
	경남	5.04	0.63	44,188.81	59,590.38	0.67
	제주	4.91	0.68	83,191.14	100,107.9	5.02
	신협	전국	2.53	0.80	84,834.14	106,763.3
특·광역시		2.37	0.97	95,159.96	119,665.9	0.87
도		2.65	0.67	76,802.94	96,727.97	4.1
서울		0.69	1.53	133,375.90	174,529.7	0.70
부산		1.47	1.59	126,055.30	146,703.2	0.78
대구		3.17	0.78	88,793.34	112,410.1	0.50
인천		1.43	0.86	78,942.44	105,555.8	1.92
광주		4.62	0.65	76,582.87	94,918.99	0.95
대전		3.43	0.52	71,180.65	92,976.59	0.95
울산		1.77	0.85	91,189.19	110,566.7	0.28
경기		1.21	0.86	75,664.94	92,291.83	0.98
강원		1.94	0.76	86,563.43	110,451.9	1.06
충북		3.93	0.58	79,859.49	104,305	0.72
충남		2.71	0.48	62,647.55	81,643.48	0.79
전북		3.31	0.44	79,905.49	103,697.1	0.65
전남		2.42	0.62	81,009.26	99,695.74	1.01
경북		1.82	0.51	56,172.06	76,895.84	0.69
경남		1.55	0.70	71,908.64	91,780.95	0.63
제주		4.97	1.07	97,495.64	109,789.9	4.10

주: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음.

요약하자면 금융포용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표 3>은 새마을금고의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가 신협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점당 여수신 규모와 정책자금 대출비율 수준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협에 비해 금융기관의 확산 측면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금융서비스의 제공, 특히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통해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할 수 있다는 사실로 분석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지역금융기관의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목적하에 대표적인 지역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성과평가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신협과의 금융포용지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금융포용지수에 금융기관의 확산 정도,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성인 10만명당 지점 수, 조합원당 출자금, 지점당 여수신 규모, 정책자금 대출비율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협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점포당 여수신 규모와 정책자금 대출비율이 신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마을금고가 가진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새마을금고는 2019년 말 자산기준으로 금융협동조합 중 농협에 이어 자산규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전국적으로 190조 4,162억원으로 농협의 402조 424억 원에 이어 높은 자산규모이며, 그다음으로 신용협동조합이 102조 4,538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조합수는 2019년 기준으로 1,301개로 농협 1,118개, 신용협동조합 883개에 비해 많은 조합수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자산규모와 많은 조합원, 영업망을 지닌 새마을금고는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역량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발표한 사회적금융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역금융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 다음의 제안이 가능하다. 우선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최근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상품은 최대 0.5%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대출·담보대출 상품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아 기업 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전용 대출상품으로 공급되는 자금대출의 절대 규모가 작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의 자금공급 규모로는 매년 증가하는 사회적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새마을금고는 관계형 금융기관이라는 강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관계형 금융은 지역주민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대출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판로알선, 경영컨설팅 등의 거래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해온 새마을금고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보다 관계형 금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지역밀착형 금융에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통상적으로 여신의 제공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 수요자가 채무불이행(default)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신용도에 따른 채권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 신용도에 대한 오랜 기간의 데이터가 축적된 장점을 활용한다면 여신제공에 따른 심사비용(screening cost)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즉 개별 새마을금고 조합이 영업구역으로 삼고 있는 지역 내에서 관계형 금융을 현재보다 활성화 시킨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심사비용 등에서 비용절감 및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 본래 설립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중에서 지역별로 설립된 마을기업들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및 자본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유망한 마을기업들을 발굴 육성하여, 선제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성장단계 초기에 놓인 유망기업들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새마을금고 운용자금의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들이 창출하는 고용, 부가가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12)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며, 가격체계에 근거한 경쟁과 교환의 원리가 아닌 공동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연대와 협력, 상호호혜와 민주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와 구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유현, 2019). 2018~2019년의 경우 새마을금고가 밝힌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8년 6개 업체, 3억원 규모에서 2019년 20개 업체, 10억원 규모이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조합의 주주인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내 조합원 수를 꾸준히 늘려갈 필요가 있다. 조합원 기반의 확충은 새마을금고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조합원들이 새롭게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위한 충분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 조합원 가입에 대한 유인으로 한 가지 대안은 조합원 납부금에 대한 매년도 경영성과를 환원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자한 조합이 성장하고, 그 이익이 주민들의 이익과 연계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조합원 가입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새마을금고와 신협외 금융포용지수는 최근 5년 동안 특정 변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값으로 분석기간을 확대하거나 다른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융포용지수가 지역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금융기관간 대체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에 분석된 적이 없는 지역금융기관의 금융포용을 위한 현황 및 추이를 제시하며, 현재 전반적으로 낮은 금융포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지가 높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유현. (2019).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에 대한 시군구 지역별 횡단면 분석. 「한국행정학보」, 53(4): 151-175
- 김정현·전성범. (2015). 「광주전남지역 금융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 박창균. (2016). 서민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신협연구」, 67(1): 3-43.
- 류덕위. (2011). 금융양극화와 신용협동조합의 역할 제고. 「신협연구」, 57(1): 3-39.
- 손상호. (2013).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여효성·김봉균. (2020).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건범. (2012). 금융포용과 서민금융정책 개선 방안. 「사회경제평론」, 96: 141-177.
- 정찬우. (2010).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Banerjee, A. V. and Newman, A. F. (1993). Occupational choic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2): 274-98.
- Churchill, S. A. and Marisetty, V. B. (2020). Financial inclusion and poverty: A tale of forty-five thousand households. *Applied Economics*, 52(16): 1777-1788.
- Dupas, P. and Robinson J. (2013). Savings Constraints and Microenterprise Development: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Kenya.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5(1): 163-92.
- Koomson, I. and Danquah, M. (2021). Financial inclusion and energy poverty: Empirical evidence from Ghana. *Energy Economics*, 94.
- Park, C. and R. Mercado. (2015). Financial Inclusion,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Developing Asia.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426.
- Sarma, M. (2008). Index of Financial Inclusion.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Working Paper*, No. 215.

김 봉 균: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환경관련 정책평가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Do air quality alerts affect household migration?(2019), Move more, gain less: Effect of a recreational trail system on childhood BMI(2020),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이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2020) 등이 있다(bongkyunkim@kangwon.ac.kr).

여 효 성: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hsyseo@krila.re.kr).

부록

〈표 가〉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지역별 금융포용지수: 2020년 제외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
전국	0.28	0.31
특·광역시	0.30	0.33
도	0.26	0.28

〈표 나〉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지역별-연도별 금융포용지수

지역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패널 (가)- 새마을금고					
전국	0.259	0.277	0.277	0.296	0.275
특·광역시	0.292	0.305	0.297	0.316	0.283
도	0.233	0.255	0.261	0.280	0.269
서울	0.295	0.312	0.307	0.352	0.251
부산	0.282	0.292	0.283	0.288	0.233
대구	0.286	0.307	0.311	0.360	0.276
인천	0.209	0.226	0.227	0.251	0.298
광주	0.322	0.336	0.312	0.314	0.298
대전	0.256	0.283	0.283	0.294	0.291
울산	0.395	0.381	0.356	0.352	0.333
경기	0.231	0.255	0.266	0.302	0.285
강원	0.224	0.243	0.252	0.262	0.260
충북	0.217	0.228	0.227	0.223	0.210
충남	0.239	0.254	0.257	0.278	0.254
전북	0.237	0.279	0.291	0.333	0.328
전남	0.205	0.237	0.237	0.260	0.250
경북	0.161	0.171	0.174	0.174	0.164
경남	0.170	0.179	0.189	0.200	0.199
제주	0.417	0.451	0.456	0.492	0.475
패널 (나)- 신협					
전국	0.306	0.311	0.301	0.306	0.294
특·광역시	0.336	0.341	0.326	0.336	0.322
도	0.283	0.287	0.281	0.282	0.272
서울	0.402	0.405	0.403	0.400	0.384
부산	0.417	0.432	0.412	0.437	0.426
대구	0.341	0.339	0.324	0.315	0.301
인천	0.316	0.342	0.331	0.345	0.311
광주	0.327	0.318	0.307	0.309	0.310
대전	0.247	0.255	0.251	0.257	0.245
울산	0.305	0.294	0.254	0.290	0.276
경기	0.260	0.274	0.264	0.267	0.245
강원	0.313	0.301	0.301	0.313	0.327
충북	0.296	0.302	0.288	0.298	0.278
충남	0.188	0.196	0.195	0.192	0.180
전북	0.226	0.242	0.241	0.247	0.258
전남	0.293	0.283	0.271	0.268	0.261
경북	0.137	0.144	0.145	0.164	0.154
경남	0.220	0.222	0.228	0.229	0.217
제주	0.612	0.62	0.597	0.561	0.526

주: 세종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금융포용지수는 성인인구 10만명당 점포수,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 지점당 여신규모, 지점당 수신규모, 전체 대출금 대비 정책자금 대출비율을 이용하여 도출하였음.

〈그림 가〉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금융포용지수 추이: 지역별

